

### ❖ 하박국 3. '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'

#### ➤ 들어가기

세상의(이스라엘)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놀라고 놀랄 만한 답을 주셨습니다. 곧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민족을 일으키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란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온갖 악행을 일삼는 갈대아 민족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응답이었습니다.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,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은 기쁨으로 찬송할 것이고 고백했습니다.

#### 1. '하박국' 선지자의 기도 (1-2 절)

1) 하나님의 모든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.

##### ▪ 1 절, '시기오돗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'

- '시기오돗' 이란 히/원 '쉬그요노트' 란 말로 '열정적인 시와 찬송' 이라는 뜻!  
-> 곧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예배 음악의 한 형태 (시편 7 편)
-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응답(비전)을 받은 후, 강한 감정의 변화와 긴장감을 느끼며 본 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음!

2) 하박국 선지자가 올린 기도의 중심 주제는? => '하나님의 긍휼'!

##### ▪ 2 절, '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.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.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.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'

- ①. 우선 하박국 선지자는 '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, 나타내시옵소서' 기도!
  - 그럼 그가 말한 주의 일은 무엇? =>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갈대아인들의 심판!!
  -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부흥과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부흥과는 의미가 좀 다름!!
  -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은 심판을 통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성도/공동체를 의미!!
- ②. 하박국 선지자는 이때 특별히 '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' 간구!!
  -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심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듯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!!
  - 여기서 우리는 그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음!

#### 2.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며 찬양하는 선지자 하박국 (3-16 절)

1) 우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들,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기하며 찬양! (3-15 절)

①. 3 절, ‘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’

- ‘데만’과 바란 산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, 하나님께서 70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곳! (민 11:16)
- 곧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결국 갈대아인들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바라며 찬양한 것!

=>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날을 회상하며,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고,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며, 그의 광명은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’고 찬송!! (3a-4 절)

②. 5 절, ‘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’

- ‘역병과 불덩이’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위해 애굽에 내렸던 무서운 심판들을 상징적으로 예로 든 것!
- 이같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‘땅은 흔들리고, 나라들은 떨고,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산들과 언덕들은 무너진다’고 찬양! (6 절)

③. 7 절, ‘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’

- ‘구산의 장막’과 ‘미디안 땅의 휘장’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왕 ‘구산 리사다임’과 미디안 백성들을 가리킨 말!
- 비록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을 수차례 괴롭혔으나 결국은 사사 웃니엘과 기드온에 의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었음!

④. 8-9 절, ‘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

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

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.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’

-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‘말을 타시고,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’고 묘사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기!
-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‘강들과 바다에 성내셨다’는 표현으로,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홍해와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역사를 상기하며 찬양!
-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홍해와 요단강을 비롯한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강조!! => 10 절!, ‘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’

⑤. 11 절, ‘...,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!’

-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해를 멈추신 일이 있음!! =>예: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기 위해 간구했을 때(수 10 장)
- 참고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 주시는 것!! => 그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며,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심!!

⑥. 12-14 절 :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 곧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모든 왕들을 멸하신 것을 상기하며 찬양!

- 특별히 13 절 주목! , **‘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,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**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’ =>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도 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!

⑦. 15 절, ‘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’

- 다시금 흥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며 1 부 찬양을 마무리!

2) 그런데, 위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선지자지만, 그의 마음 한 곳에는 여전히 갈대아인들로부터 당할 환난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! (16 절)

- 16 절, **‘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.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’**

-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떨수 밖에 없고, 걱정/근심하며 힘들어 하는 것이 당연!!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!
- 하박국 선지자는 이같은 자신의 약함을 **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한 것!!**

### 3. 하박국 선지자의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찬양! (17-19 절)

1) 어려운 환난이 다가온다 하여도, 나아가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 하여도,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 고백!! (17-18 절)

-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인간적인 약함을 초월하여 드린 찬양!!

2)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사 높은 곳으로 뛰게 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!! (19 절)

-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,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떤 환경과 상황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송하게 될 것!!

✚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나 결단은?

✚ 중보기도 제목나눔